

박세리

LPGA US여자오픈 공동 3위

위성미

예전 기량 되찾았다

우승까진 2% 부족

박세리(29·CJ)가 완전한 부활을 과시했다.

박세리는 3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 마지막 날 공동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3위에 올랐다.

4일 최종 승자를 가리는 연장전에는 합류하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박세리의 샷과 자신감은 슬럼프에서 완벽하게 탈출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이번 대회에서 박세리는 4라운드 평균 그린 적중률이 68%였다.

70%에도 못 미쳤지만 이번 대회가 매우 어려운 코스에서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급 수준이다. 이는 소렌스탐과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공동 2위, 당대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아이언 샷이었다.

페어웨이 안착률은 평균 80%로 역시 안정적이었다. 드라이브샷 거리는 평균 245야드로 공동 12위를 기록했지만 짧지 않은 거리다.

박세리의 퍼트수는 라운드당 30.5개, 홀당 1.69개로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특히 메이저를 5차례나 제패한 박세리답게 코스가 어려울수록 샷이 빛을 발했다.

지난해 7월 브리티시여자오픈 1라운드 8번홀까지 6오버파의 성적을 낸 뒤 9번홀 경기를 치르다 기권, 필드에서 모습을 감춘 박세리는 지난 3월 11일 투어에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정확히 컴백 3개월만인 지난 12일 메이저인 LPGA맥도널드챔피언십을 제패했다.

겨울난 '골프 여왕' 박세리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천만달러의 천재 골퍼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또 정상 문턱에서 돌아섰다.

위성미는 3일 끝난 시즌 세번째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최종 합계 2오버파 286타를 쳐 공동 3위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지만 공동 선두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팻 허스트(미국)에 2타 뒤져 연장 승부에 함께 나서지 못했다. 3라운드까지 장정현 우승후보들과 공동 선두로 나섰던 위성미로서는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지 못한 것이 다시 아쉬움으로 남았다.

기록만으로 볼 때 위성미는 이번 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페어웨이 적중률이 57%로 공동 65위에 그친 것이 흠이지만 드라이브샷 비거리는 평균 264.9야드로 전체 선수 중 1위였고 아이언샷의 그린 적중률도 60%(공동 18위)로 괜찮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퍼팅에서도 정규타수만에 그린에 올렸을 때 평균 퍼트수가 1.57개로 공동 3위에 오른 것은 괄목할 만한 기량 발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성미는 우승 후보들과 팽팽한 접전을 펼칠 때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는 클러치샷을 날리지 못했다. 지난 4일 크래프트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도 위성미는 1타가 모자라 연장 승부에 들어가지 못해 공동 3위, 6월 맥도널드LPGA챔피언십에서는 마지막홀 보기로 공동 5위에 그쳤다.

하지만 위성미는 이번 대회의 선전으로 내년 US여자오픈 자동 출전권을 따내 이번 대회 출전이 결코 특혜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종·범 2군 강등



'용병타자' 서브네 퇴출, '주포' 홍세완·심재학 부상, '에이스' 김진우·강철민 어깨염증, '미들맨' 정원 재할치로 중...

"중범이도 추가요(?)"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6연패에 빠진 KIA가 심각한 타격부진을 겪고 있는 이종범(36·사진)마저 2군으로 강등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주전 줄부상 겹쳐 KIA '특급 비상'

KIA는 3일 "이종범을 2군으로 내리고 외야수 임성민(24)을 대신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프로 13년차인 이종범이 국내에서 2002년 광대배 부상으로 잠시 1군에서 빠진 적은 있지만 타격 부진으로 2군에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3년 해태에서 프로에 데뷔한 이종범은 국내에서 뛴 10시즌 가운데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3할 이상을 기록했다.

잠시 슬럼프에 빠져 시즌 타율이 0.260을 그쳤던 2004년에도 득점 100개로 이 부문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그가 올해처럼 장기 부진에 빠진 적은 없다.

이종범은 3일 현재 0.221(226타수 50 안타)의 타율에 머물러 있다. 특히 최근 6경기 타율은 0.154로 극히 저조하다.

타순도 시즌 초 1번에서 2번으로 옮기더니 급기야는 하위 타순을 오고가는 신

세가 됐다.

이종범은 최근 한달간 특별 타격훈련을 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지만 방향이 살아나지 않아 코칭스태프와 상의를 거쳐 2군행을 결정했다.

이같은 이종범의 2군행에는 팀 분위기에 차원의 성격도 짚는다. 최근 6연패를 기록해 10경기서 8패(1승1무)에 그친 KIA는 갈 길이 바쁜 상황. 1위 삼성에 10경기나 뒤진 5위에 처져 있다. 4위 현대와의 승차도 4.5경기로 반전의 계기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더 이상 선수들의 '이름'만으로 주전 엔트리를 꾸려나갈 여유가 없다.

한편 이번 주 KIA는 최근 연습모드로 돌아선 두산(4·6일·잠실)과 현대(7·9일·광주)를 만나 힘겨운 6연전을 벌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프로야구 중간순위 (3일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38	22	3	0.633	-	1패
2	한화	35	29	1	0.547	5.0	1패
3	두산	32	27	2	0.542	5.5	2승
4	현대	35	30	1	0.538	5.5	1승
5	KIA	28	32	3	0.467	10.0	6패
6	S·K	30	35	1	0.462	10.5	1패
7	롯데	26	35	1	0.426	12.5	1패
8	L·G	25	39	2	0.391	15.0	1승



함평다이내스티 비회원 주중 그린피 3만원 파격 할인

오는 10일부터 8월말까지

○~4개월 양간디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가 휴서기를 맞아 오는 10일~8월31일까지 주중 비회원 그린피를 3만원 할인하는 파격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비회원들은 주중 그린피 11만2천500원(카트비 별도)에서 3만원 할인된 8만2천500원이면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함평다이내스티CC는 페어웨이에

식재한 잔디 캔터키블루그래스의 생육상태가 오는 8월까지 최고조에 달해 푸른 용단같은 잔디에서 골프의 참맛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내 대표는 "오는 8월까지 최적의 잔디상태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잔디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비회원들 그린피를 대폭 할인했다"며 "내장객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골프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파인힐스 아이스크림 제공

○~파인힐스CC는 휴서기를 맞아 오는 8월말까지 월요일과 주말(공휴일 포함) 기온이 30도가 넘으면 필드에서 내장객들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

또한 8월말까지 오전 5시30분~7시30분까지 평일 9홀 조조라운딩을 운영, 휴서기를 피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골드레이크 화채 서비스

○~골드레이크CC는 휴서기를 맞아 오는 8월말까지 클럽하우스에서 시원한 화채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경기도우미를 통해 내장객들에게 냉커피와 시원한 아이를 제공토록해 더위를 식히면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경주 공동 44위

PGA 뷰익챔피언십 최종

J.J. 헨리(미국)가 고향 땅에서 열린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헨리는 3일(한국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크롬웰의 TPC리버하일랜즈골프장(파70·6천820야드)에서 열린 뷰익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3타를 더 줄여 최종 합계 14언더파 266타로 79만2천달러의 상금과 우승컵을 차지했다.

최경주(36·나이키골프)는 최종합계 1언더파 279타로 공동 44위에 그쳤다.



4일(화)

▲메이저리그<애리조나-LA다저스>(11:00·Xports)

▲황금사자기 교묘야구(13:00·KBS1·KBS SKY SPORTS)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주니치>(17:50·SBS스포츠)

▲프로야구<SK-삼성>(18:30·KBS SKY SPORTS) <현대-롯데>(19:00·MBC ESPN)

5일(수)

▲메이저리그<디트로이트-오클랜드>(05:55·Xports)

서경빌딩 임대

● 1층: 120㎡ (사무실, 카페, 식당)
● 2층: 150㎡ (사무실, 카페, 식당)
● 3층: 180㎡ (사무실, 카페, 식당)
● 4층: 200㎡ (사무실, 카페, 식당)

● 1층: 120㎡ (사무실, 카페, 식당)
● 2층: 150㎡ (사무실, 카페, 식당)
● 3층: 180㎡ (사무실, 카페, 식당)
● 4층: 200㎡ (사무실, 카페, 식당)

● 1층: 120㎡ (사무실, 카페, 식당)
● 2층: 150㎡ (사무실, 카페, 식당)
● 3층: 180㎡ (사무실, 카페, 식당)
● 4층: 200㎡ (사무실, 카페, 식당)

● 1층: 120㎡ (사무실, 카페, 식당)
● 2층: 150㎡ (사무실, 카페, 식당)
● 3층: 180㎡ (사무실, 카페, 식당)
● 4층: 200㎡ (사무실, 카페, 식당)

농기계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 트랙터
● 콤바인
● 수확기
● 이앙기
● 파종기
● 관수기
● 방목기
● 기타

● 트랙터
● 콤바인
● 수확기
● 이앙기
● 파종기
● 관수기
● 방목기
● 기타

● 트랙터
● 콤바인
● 수확기
● 이앙기
● 파종기
● 관수기
● 방목기
● 기타

● 트랙터
● 콤바인
● 수확기
● 이앙기
● 파종기
● 관수기
● 방목기
● 기타